



제15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현대 사회에서 불교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 사회 불교도의 역할을 모색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입정교성회 보문관에서 열렸다. 동북아의 평화와 불교 교류 확대를 위해 시작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199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바 있고 일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제15회 대회로 주제는 ‘현대 사회에 있어 불교도의 역할’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지도자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교류위원단 회의, 세계평화 기원법회, 국제학술 강연회, 공동선언문 채택, 축하 만찬 등의 행사가 포함되었다.

세계평화 기원법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의식에 따른 예불을 20분씩 올리고 세계평화 기원 메시지, 표백문(表白文)을 발표하며 ‘황금유대’의 시대를 이어갈 것을 서원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① 세계평화 기원법회 ② 박가와사키 평간사 방문

스님은 세계평화 기원 메시지에서 “불교가 정치, 경제, 사상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시대에도 세계 불교계는 인류의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쉬 없이 정진해 왔다”며 “상호이해와 교류를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세대와 후손을 위한 선명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인의 본연의 자세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성(明生)스님은

표백문에서 “현대사회의 중생들은 탐진치로 깨달음을 등지고 신구의로 여러 악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재난이 빈번하고 있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과 재난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길 기원하며 그 길에 불자들이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의 회장 이토 유이신(伊藤唯眞) 스님은 표백문에서 “일중 한 3국은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통한 교류의 역사를 통해 깊은 우의를 쌓아왔다”면서 “부디 이 인연을 소중히 해 세계평화와 일체만물이 평화롭고 자비로울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한국불교대표단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후 10월 25일까지 임제종 원각사파의



대본사인 가마쿠라 엔가쿠지(円覺寺)와 진언종 지산파의 대찰인 가와사키 헤이켄지(平間寺) 등 일본 주요 사찰을 순례하며 우호관계를 다졌다.

마음 다스리는 음악축제, ‘화엄제 2012-내려놓으니 아름답구나’

지난 10월 27일 오후, 가을비가 자박자박 내리는 지리산 화엄사에서 국제영성음악제 ‘화엄제 2012-내려놓으니 아름답구나’가 개최되었다. 2006년 ‘첫발자국’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화엄제는 그동안 화엄경 입법제품의 주인공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따라왔다. 2007년 ‘길 떠남’으로 길을 나선 선재동자는 2008년 ‘길을 묻다’를 했고 그 결과 2009년 많은 ‘길동무’들을 만났다. 2010년 ‘길느프다’로 고비를 넘은 선재동자는 2011년 ‘기쁨마중’의 감동을 함께 했고 올해 2012년 구도행의 한 주기를 매듭짓는 ‘내려놓기’를 했다.

“영성음악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려놓는 일입니다.생각의 바쁨을 내려놓으시고, 머

릿속의 짐도 가슴속의 오래된 상처도 내려놓으시고, 분노와 탐욕과 어리석음 모두 내려놓으시도록, ‘화엄제 2012-내려놓으니 아름답구나’에 모십니다”라고 한 주최측의 초대글처럼 내면의 성장과 영성 음악에 관심을 가진 이날 참가자들은 세계적인 영성음악가들의 연주에 마음을 다스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모습이었다.

주요 앙상블과 함께 한 디첸 삭 닥사이의 음악은 티베트의 전통 만트라가 현대음악화된 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성음악가의 음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들려주었다. 중앙대학교 한승석 교수와 바라지의 연주, 북한과 남한의 국악명인들을 사사한 박순아의 가야금 연주, 인도 전통음악의 거장 슈바 조쉬의 노래,

마니쉬 비아스의 타악기 연주, 원일 교수의 음악, 박우재의 거문고 연주, 아아람의 대금 산조, 박치음 교수의 노래 등은 현장을 찾은 모든 내외국인들의 마음에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제주무형문화재로 제주큰굿 전수자인 서순실 심방(무당)이 들려준 제주 큰굿의 한 대목 ‘저승 사자의 노래’ 역시 인상적이었다. 저녁 공양 후 다시 이어진 음악제의 ‘달는 의식’은 마음 밝히는 쫓불들이 은은히 밝혀진 가운데 경건하고도 장엄하게 치러졌다.



① 박치음 화엄제 총감독과 함께 부르는 노래 ② 박순아와 가야금 연주 ③ 음악에 집중하는 참가자들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Korean Buddhism International Network / 대표 정범)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결사 모임체'이다. 단체의 역사는 2002년 4월 미국동부스님들의 전례모임인 미동부승가회와 뉴욕인근 스님들이 모여 조계종 뉴욕사원연합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포교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의 소식을 주고받고, 유용한 정보를 불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소식지 발간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10년의 세월 동안 제호가 몇 번 바뀌기는 했지만 그때 맺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발간돼 매달 한 번씩 나오는 세계일화는 국제포교, 국제구호, 국외한국 불교, 국제불교뉴스, 이주민지원 등의 코너를 마련해 미주, 유럽 등 해외사찰과 국제

포교단체, 국내 다문화 지원단체 등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계시는 스님들의 인터뷰나 제언, 사찰 소식을 골고루 실어 눈길을 끈다. 또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인도, 중국, 미국 등에서 보도하는 해외불교기사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소식지는 해외사찰, 전국 교구본사 및 템플스테이 사찰, 국제포교사회 등으로 약 3,000부 가 배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에 개설한 홈페이지(www.dourim.net)를 통해 전 세계 사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사찰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다.

현재 대표를 맡는 정범스님은 "네트워크에서 사전 정보를 얻은 다음 활동가나 단체, 사찰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활동하면

훨씬 효율적인 포교가 이뤄질 거로 생각했다"며 "전 세계 사찰과 본교과의 통로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불교 전령사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의 공적 영역을 네트워크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며 "더욱 많은 분이 해외 포교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스님은 말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종단 소식지 '세계일화' 발행 및 홈페이지운영 사업, 해외한국사찰과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후원 사업, 국내 이주민 지원단체 후원 사업 등이다. 여기서 2011년부터는 해외청소년을 한국에 초청하여 불교문화와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연말에는 국내의 불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사찰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였고, 올 연말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종단이나 사찰들이 일일이 나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우리나라와 해외 간에 이어주는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불교 국제네트워크는 그동안의 활동 노하우를 살려 앞으로 국제전법단 발족 등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한국불교 인드라마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갖고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070-7769-8985

www.dourim.net

① 2011년 12월 한국 청소년 연수단이 뉴욕 불광선원을 방문하였다. ② 국제불교 소식지 '세계일화' 편집회의 모습. ③ 부처님오신날 기념 문화마당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법고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인생의 어둠 밝혀준 법화경, 스마트폰 어플로 다시 태어나다

출가한 지 벌써 25년이나 지났건만, 나는 생사를 초월한 깊은 깨달음을 아직은 얻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마음의 안락을 불법 가운데에서 얻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그 독한 항암주사도 일말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순전히 무상(無常)의 이치 덕분이었다. 『금강경』의 공사상에서 샘솟는 환희를 느꼈고, 무엇보다 『법화경』에서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무아와 무상(空)의 도리만 알고, 일승사상으로 대표되는 참된 실상의 이치까지 헤아리지 못했더라면 그것은 끝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특히나 『법화경』의 '여래수랑품'에서 뜻 생명의 근원이 본래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여래의 한량없는 수명임을 마음 깊이 확신하게 된 덕택이다.

면역력이 무너져 내리며 갈수록 신경만 예민해져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어둠 속에서 법화경 CD를 틀어놓고 밤새 들었는데, 누워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찬 감격을 주었다. 사실 법화경 CD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내게 이토록 절실한 구원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요즘엔 스마트폰에서 '법화경 어플(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예전에 오디오를 통해 들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음질로 편리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법화경 어플이 개발되기까지는 많은 이의 원력과 땀이 깃들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 진보 씨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처음 안 진보 씨를 알게 된 것은 2009년 겨울 무렵 한참 항암치료 중에,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우리말 법화삼부경 mp3" 음반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연락처를 남겨놓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날 법화경 CD를 받은 사람이라며 만나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경전 CD의 가치를 알아주는 마음이 참으로 고맙게 여겨졌다. 그래서 좀 무리한 부탁이 되겠지만 용기를 내어 선뜻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전 음반을 만든 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이것을 바쁜 현대인들이 좀 더 쉽게 접하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도록 어플로 개발해주세요."

아무리 법화경 CD로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해도, 사실 처음 만난 사이에 심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을 나는 행여나 기회를 놓칠 새라 열려 말해버린 것이다. 그후 미디어포교에 관심 있는 분들과 연결되어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땀방울들이 모여, 1년 6개월 만에 모바일로 아무 때나 손쉽게 들을 수 있는 법화경 어플이 출시되었다. 기본 어플 개발비만 해도 1억이 훨씬 넘게 들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티스토어 또는 웹스토어 같은 데서 '법화경'을 검색하여 3000원 정도 내고 한 번만 다운로드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들고 싶은 법화경 전체를 다 들을 수가 있다. 수익금에 관해서는 다른 경전 어플을 개발하는 데 쓰기로 했으며, 우선 "무량외경"과 "관보현보살행법경" 어플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한다.

오늘날처럼 돈과 명예를 최고 가치로 인식하는 저급한 자본주의 세태 속에서, 자신의 재물과 열정을 다 바쳐 경전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그를 보면 선재동자가 떠오른다. 앞으로 우리들도 다양한 경전 어플을 개발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글_혜조스님

국제선센터, 플럼빌리지 법사단 초청 '마음챙김 수행의 날' 행사

국제선센터(주지 법정) 금차선원은 지난 10월 20일에 탁났한 스님의 제자인 플럼빌리지 법사단 판감스님, 판등스님, 토아이님 스님, 한 님 스님 등 4분 스님을 모시고 '마음챙김 수행의 날' 데일리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국제선센터와 BTN 불교TV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걷기 명상, 담마토크, 이완 명상, 법과 마음 나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종교나 인종에 상관없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플럼빌리지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모인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노래와 동작으로 하는 호흡명상부터 걷기 명상, 먹기 명상까지 각 명상 프로그램들을 집중해서 수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 신도(원명 행 이원)는 이런 참가 소감을 남겼다. "내일 해야 할 일도 생각하지 않고 어제 집이나 회사에서 미결된 일의 해결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걷기에 몰입하고 먹기에 몰입함으로써 깨어 있는 마음, 이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마음을 보내고 감각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내년 5월 초에 방한할 예정인 탁났한 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3박 4일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프로그램을 회향했다.

글_국제선센터 국제주임 김용태



(좌)명상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 법사 스님들 (우)프로그램이 끝난 후 기념 촬영

대정진심으로 회향하는 지구촌공생회의 '교육불사'

▼ (좌)초등학교 학생들의 환영 인사 (우)영화초등학교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때부터 시작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지구촌공생회 활동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만해사상 실천선양회(총재 자승스님)가 제정하고 만해마을이 수여하는 제16회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상금 5,000만원 전액을 케냐 만해 학교 건립금으로 회향했다. 월주스님의 수상은 불교계의 경사요, 케냐 마사이족 어린이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었다.

케냐 카지아도주 올로이토키톡 지역에 세워질 만해학교의 건립액은 한화로 1억 2,000만 원. 지구촌공생회는 만해 한용운스님이 평생 헌신했던 생명·평화사상을 케냐에 전달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하바리(안녕) 만해학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많은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캠페인의 모금액은 목표액 5,000만 원을 훌쩍 넘어 9,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지구촌공생회를 이끄는 수장 월주스님의 변함없는 대정진심과 이를 지지해 주시는 10,000여 명의 후원자, 그리고 국내외 활동가들의 피땀 어린 노고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올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총 7개의 교육시설을 건립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시작한 지구촌공생회의 국제개발구호 사업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총 25개의 교육기관이 생겼다.

올 초에 라오스에는 나움마이 초등학교 준공식을 거행했고, 대한불교조계종 영화초등학교가, 케냐에는 엔요르 영화초등학교가 세워졌다. 캄보디아에는 창원시의 후원으로 창원시국제교류협력지원센터가 세워졌고 캄보디아에는 박정순 후원자의 도움으로 정꽃 박정순 초등학교 도서관이 자리를 잡았다. 11월 7일에는 비구니스님들 모임인 마하회의 후원으로 미얀마에 세워진 제야아웅 마하초등학교와 광명

암의 후원으로 세워진 아난다미따 광명 초등학교 준공식이 거행됐다.

“가난하고 억압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참다운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현행원이다”라고 말하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 화두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 정진하는 수행자처럼, 전 세계 천천불들을 향한 지구촌공생회의 '교육불사'는 오늘도 쉽다.

지구촌공생회 후원문의 02-3409-0303

하바리(안녕)만해학교! 캠페인 후원 계좌

외환 630-007156-170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더프라이스 - 미얀마 두 개의 학교에 불어오는 희망의 바람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The Promise)는 미얀마 지부 민가룬 학교(미얀마 양곤주 편린시 위치)의 증축 준공식(11월 6일)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마야요 학교의 기공식(11월 8일)을 맞이했다. 더프라이스의 다섯번째 학교가 된 민가룬 학교에는 건물 1채가 증축되고 책걸상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으로 240명 학생들에게는 새 교실 6칸이 생겨난다.

현재 민가룬 학교는 민가룬, 냐웅와잉, 빠옥떠 총 세 곳의 마을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민가룬 마을은 중학교 교육시설이 전무하며, 인근 중학교까지 최소 약 45분에서 최대 2시간이 소요되어 중학교 진학률이 55%에 머무르는 실정이었다. 또한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공공 교통편이 연결되지 않아 공공 서비스 소외 지역이었으며 유일한 교육 시설인 민가룬 학교는 공간 부족문제로 중등 교육이 허가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중등 예비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가룬 학교의 뒤를 이어 마야요 학교에도 학교 증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수혜 학생은 총 998명으로 건물 1채(교실 5칸)와 책걸상, 화장실 1채(8칸)가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교실과 화장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더프라이스는 교실 증축으로 교실 1칸당 평균 학생 수를 줄이고, 부족했던 책걸상과 화장실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프라이스는 지금까지 미얀마 네 곳의 학교(오보, 관찬론, 아례요아, 제따원)에 건물 증축과 동화책, 책걸상 지원을 해왔다. 더프라이스가 지원한 학교는 공통적으로 지역 아동의 중등 교육권(Post-Primary School)이 보장되지 못한 미얀마 낙후 지역으로 해당 학교에 중등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비중등교육의 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프라이스 후원문의 070-7596-9988~9

www.thepromise.or.kr



(좌)민가룬 학교의 아이들 (우)민가룬 학교의 새 책상



9월 12일 수원시청에서 양해각서 체결 후 (앞줄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 수원시 염태영 시장, 국제자원봉사단체 행복캠프 홍순목 회장)

로터스월드, 수원시와 시엠립 프놈크롬 마을 빈곤 퇴치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제구호·지역개발단체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시엠립 프놈크롬 마을의 빈곤 퇴치를 위해 수원시와 국제자원봉사단체 행복캠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캄보디아 프놈크롬마을 취약계층 주민들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프놈크롬 마을은 2007년부터 수원시가 도로포장, 교량보수, 학교신축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곳으로 주민 2,800명 가운데 약 37.5%가 1일 1.25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마을이다. 로터스월드는 프놈크롬 마을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가사와 육아, 60%가 넘는 높은 문맹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여성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놓여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취약계층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탁아소 운영과 협동조합 방식의 수공업품 제조·판매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교육훈련을 통한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 주민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

회의 리더십 교육훈련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법은 무척 중요하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은 주민이나 마을의 일이 아니라 지원하는 단체의 일로 여겨지기 쉽고, 성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아동결연사업, 열악한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로터스월드와 수원시가 함께 추진하게 된 프놈크롬 마을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이후에도 연장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지자체와 NGO간의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수원시의 지원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금모금을 통해서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빈곤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구촌 시민의 일원으로 서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로터스월드는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우며, 많은 사람들과 빈곤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힘쓰고 있다.

로터스월드 02-725-4277

www.lotusworld.or.kr

시카고 불타사, 포대보살 점안 1주년 기념 가요제 개최

10월 27일 불타사 보원관음전에서 포대보살 점안 1주년 기념 불타가요제가 개최되었다. 불타사에 전통적 사찰의 느낌을 주기 위하여 한국 사찰의 사계절과 유명 사찰의 일주문 등을 그림으로 무설전에 안치하고, 신도들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대보살상 점안 1주년을 맞았다. 불타사 주지 현성스님과 행사에 초대받아 서울에서 온 세계일화 편집장 진서스님, 상공회소 회장 권용철 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타사 가족으로서의 긍지를 보이며 즐겁고 하나 된 모습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가요제는 불타사 가족 22개 팀이 나와 경연을 벌였으며 대상1팀, 금상과 은상 그리고 동상은 어린이와 어른 부분으로 나눠 각각 1팀씩 수여되었고, 참가한 모든 팀에게 참가상이 주어졌다. 가요제의 특색은 스님께서 직접 노랫말을 만들었고, 불타사 합창단장을 맡고 있는 정법심 보살이 작곡한 “가는 것이 가는 것인가”라는 곡이 제일 많이 불렸다. 가사 내용은 ‘삼라만상 물따라 바람따라 변하는데 그 물과 바람에는 생명이 없구나... 마음에 생사없음을 깨달아서 내 사는 동안 복과 지혜 닦고 또 닦네’이다. 스님은 여러 곡의 찬불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이 곡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 총 7팀이 한 달여간 연습하여 불렀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두가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갈 것 같았다고 했다. 또한, 한팀 한팀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래하는 모습이 관람하는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냈다. 포대보살 점안 1주년 기념 가요제를 개최한 이유를 스님은 “포대보살상의

넉넉한 보살행을 설명하며 삶에 지친 신도들에게 정서를 느끼게 하고 싶었다. 또한, 노래를 통해 불안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했다. 연습하면서 뜻을 이해하게 되고, 안정된 모습을 서로 나누는 걸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요제를 준비하면서 엄마 아빠 아들딸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에 기쁨을 느낀다. 내년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모든 사람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상에는 한복을 곱게 입고 나와 ‘연꽃 피어오르리’를 열창한 장수영 거사가 나만의 스타일, 가창력 등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상금으로 1,000달러를 받아 참가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경연이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는데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연령대가 골고루 어울려 있어서 생기발랄한 모습 그대로였다. 불타사의 변신은 계속 될 것이다. 팔순을 바라보고 계신 주지 스님은 12월에 2주 휴가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 떠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적과 관계없이 사찰이나 단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타사 주지 현성스님이 시카고로 세계일화 편집장 진서스님과 편집위원 선정화 보살을 초대하여 주었다. 그래서 직접 취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미국 내 한국 사찰의 현황을 둘러봄으로써 앞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초대했다고 한다. 스님의 깊은 뜻에 감사하며 세계일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글_ 편집위원 선정화



① 불타 합창단과 어린이들의 노래로 불타 가요제가 개막되었다. ② 시내 학생의 아리랑 열창 모습 ③ 불타사의 자랑 불타예술단 어린이팀의 향발춤 공연 ④ ‘연꽃 피어오르리’를 부른 장수영 거사의 대상 시상식 ⑤ 출연자들이 내년의 만남을 기약하며 합창하고 있다.

북가주 연합 청년 모임, 조은수 교수 초청 강연



11월 3일 타라 정기법회를 끝마치고, 오후 3시에 오를랜드 보리사에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은수 교수의 “우리는 불교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What Do We Expect from Buddhism) - 불교의 업(業) 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다. 이번 강의를 마련한 타라는 북가주 연합 청년 모임이다.

산호세 박종성 불자 부부 등 20여 명의 불자가 참석하여 강사로부터 흥미로운 철학적 불교 강의를 들었다. 조은수 교수는 이번 학기에 버클리에서 머물면서 UC Berkeley에서 두 개의 강의도 맡고 있다면서 본인 소개부터 시작했다. 미시간 대학에서 강의하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 강의를 맡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여성 불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강의는 불교 안에서 오해할 수 있는 업의 논리를 철학적으로 쉽게 해석을 했다.

버클리 재학 중인 신지호군은 “불교 안에서 천상의 개념과 기독교 안에서 천당

의 개념이 다름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한 불자는 불교 안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 어려냐고 묻자 조은수 교수는 “불교 안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보다는 선과 불선의 개념이 있다. 그러나 그 선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했다. 학창 시절 윤리 시간에 배웠던 데카르트의 ‘자유지’에 대한 개념도 설명했다. 철학적 불교의 접근 방법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왔는지 질문을 많아 두 시간 남짓 강의가 진행되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타라 법회를 하는 오를랜드 보리사는 젊은 불자들의 인식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회가 있는 첫 번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불교성전’을 가지고 함께 독송하고 뜻을 되새기는 불교 스터디를 하고 있다.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경전을 통해 타라 법사 형전스님이 보다 쉬운 불교를 알리고 있다.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뉴저지 보리사, 관세음보살 개금불사

뉴저지 티벳에 위치한 보리사(주지 원영스님)가 10월 14일 관세음보살 좌상에 금칠하는 개금불사를 시행했다. 뉴욕 일원에서는 최초로 불자들이 불모 김종근 거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부처님 몸에 금빛 옷을 입혔다. 비록 서투른 솜씨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부처님 몸에 금빛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의식을 거행하며, 마음을 새롭고 청정케 하여 불보살의 진리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보리사는 앞으로 매달 둘째 주 일요일마다 개금불사를 거행할 계획이며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11월 4일 개원 11주년 기념법회에서 원영스님의 뒤를 이어 보리사 2대 주지

로 취임한 원충스님을 맞이했다. 원충스님은 성철스님 생전 마지막까지 시봉을 든 스님으로 일본 하나조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보리사에서 참선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계층 포교 차원에서 경찰과 대학 포교에 몸담기도 했던 스님은 “경찰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 경찰과 공무원들 뿐 아니라 한인 1.5세 및 2세들에게 참선 명상을 전하고 싶다”며 “미국인 및 한인 불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주고 싶다”고 전했다. 원충스님의 참선 요가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된다.

사진제공_ 보리사 +1-201-833-0633



(좌)신도들이 직접 참여하여 부처님께 개금을 올리고 있다. (우)원충스님이 주지 취임에 이어서 가진 법회에서 기념사진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부처님 4대 성지 순례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미동부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스님)는 네팔과 인도의 불교성지를 교구 연합 사찰 신도 22명이 순례했다. 참여 사찰로는 플로리다 보현사, 뉴욕 불광선원, 뉴욕 마하선원, 뉴저지 보리사, 뉴욕 연국사이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비롯하여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설법을 전한 초전

법륜지 사르나트(녹야원)와 진리를 깨달은 득도지 보드가야, 열반지 쿠시나가라 및 타지마할, 자이푸르, 아그라 성 등을 다녀왔다. 미동부해외특별교구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단체 순례를 다녀왔으며, 교구장 휘광스님, 총무국장 문종스님이 인솔하였다. 앞으로도 소속 사찰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된다. 글_ 미동부특별교구 총무 문종스님



캘리포니아 샌 브루노 여래사, 개원 32주년 기념법회 봉행

10월 28일 여래사(회주 설조스님, 주지 소원스님) 개원 32주년 기념법회가 기념 법회 참석자 한국에서 온 동건·동우·지담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법회 개회를 알리는 타종에 이어 삼귀의, 찬불가, 헌공, 반야심경 등이 차례로 이어지고, 신도회장인 공영미 보살에 의해 발원문이 낭독됐다. 다음으로 동우스님의 축사, 지담스님의 달라이라마 기도문 낭송과 동건스님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시원한 음성으로 '연꽃 피어오르리라'란 제목의 노래를 불러 참석한 신도들의 마음에 환희심을 일깨워줬다. 이어서 주지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심이란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이라며 여래사를 처음 세웠던 조심으로 돌아가 함

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런 만큼 여래사 탄생 때부터 줄곧 여래사를 지켜온 '창건주 보살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축하 케익 역시 노불자들이 자르도록 배려했다. '익숙해진다'는 건 타성에 젖어 초심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 초심을 계속 상기하여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익숙한 일이라도 의식적으로 더 신경 쓰고 삼가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래사를 처음 세울 때 그 초심을 상기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면 여래사는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신도들에게 32년 전 개원 당시의 초심을 되살려 더욱 수행 정진하라고 법문했다.

샌 브루노 여래사 +1-650-588-8449

뉴욕 백림사, 14주년 개산대재 열어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킬 마운틴 산자락에 있는 백림사(회주 혜성스님)는 10월 21일 14주년 개산대재를 열었다. 조계종 국제 포교사로 도미

한 백림사 회주 개산 혜성스님이 1984년 건립한 백림사는 180여여 규모로 산사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과 명상의 장소로 유명한 조계종 전통사찰이다. 캣스킬 마운틴 산문을 열어 불법을 전하기 시작

한 것을 기념해 여는 개산대재를 올해로 14년째 올리고 있다.

이날 정오부터 백림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개산대재에는 육법공양, 보탑전 탑돌이, 다례시연, 산사음악회 등이 열렸으며 세계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또 백림사 대법당 안 전아트 갤러리에서는 14회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그룹전이 열렸다.

혜성스님과 정성애, 캐터린, 이금자 작가와 15명이 서예, 사진, 믹스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했다.

뉴욕 백림사 +1-845-888-2231

방글라데시 소수불교도 아이들의 보금자리, 모노가르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도 차를 타고 두 시간쯤은 더 가야 하는 랑가마티에 자리한 모노가르는 1974년에 설립된 방글라데시 소수 불교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거처이자 학교이다. 모노가르를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치타공까지의 비행기 환승도, 치타공에서 랑가마티까지 육로 여행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고생 끝에 만나게 된 푸른 초원, 반짝이는 눈동자의 아이들, 열정과 의욕 충만한 선생님들은 이곳까지 오는 피로를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활기차고 즐거움 넘치며 의욕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파 고개가 떨거진다. 모노가르에 있는 1,200명 가량의 아이들은 대부분 불교신자인데 그 가운데 절반인 600여 명이 돌봐줄 부모나 돌아갈 집이 없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모든 아이들은 하루에 두 끼밖에 밥을 못 먹는다.

모노가르에 머무는 며칠 사이 학교운영

위원, 교사, 후견인 그룹과 개별 회의를 하면서 각자가 느끼는 이곳의 문제점, 좋은 점, 희망사항, 꿈을 들여볼 수 있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꿈과 기대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모든 머리와 힘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 각 운영위원들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여러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새로 우물도 파야 하고 화장실도 필요해 보였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지만 건물에 손 한 번 못 댄 낙후건물도 있고 더 이상은 보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도 있었다. 모노가르에서 원명 명상 센터를 운영 중인 일보스님(똥다다타스님)도 보였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모아 올리는 전교생에게 새로운 유니폼을 맞추어 주자는 결정을 했다. 1,200명의 아이들 각자에게 맞는 옷을 해 입히자면 석 달 이상은 걸릴 것 같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날에는 아이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펼쳐 보이는 흥미진진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행운도 얻었다.

글_ 무전스님 / www.moanoghar.org

캘리포니아 샌 리앤드로 죽림정사, 불상 점안식 봉행

샌 리앤드로 죽림정사(주지 보현스님)의 불상 점안식이 60여 불자들의 경건한 기도 속에 10월 21일 봉행됐다. 죽림정사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태어난 뒤에도 별다른 소리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를 지켜왔다. 개원법회조차 생략하고 알음알음 모여든 불자들을 법일스님의 지도로 참선 정진을 위주로 마음을 닦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안식이 북가주 한인 불자들과의 공개적인 첫 만남의 자리였다.

점안식은 비자 관계로 한국에 체류 중인 보현스님을 대신해 보현스님의 은사인 자인스님이 법일스님과 함께 진행했다. 자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득이 보현스님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기뻐했을 것"이라며 "한국에 있어도 현 주지스님이 이렇게 잘하듯, 신도들도 어디에 있건 그 자리가 내 자리이므로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 공부에는 행이 제일 중요하다"며 "오감에 끄달리지 말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내가 필요한 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맘때 문을 연 죽림정사 불자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통상적인 일요일법회 대신 법일스님 지도로 오롯이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이는 죽림정사를 참다운 참선 도량으로 가꿔나가는 보현스님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보현 스님은 과거 SF 불광사 주지 소임을 맡는 동안에도 주중 참선지도를 하는 등 참선수행 보급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샌리앤드로 죽림정사 +1-510-567-3115



초대합니다

2012년

송년의 밤

제6회
북가주 불교인
송년의 밤

제6회 북가주 불교인 송년의 밤에 불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2월15일 토요일
오후 5시 ~ 8:30분

Quinlan Community Center
10185 N. Stelling Rd,
Cupertino CA 95014

식순:
식전: 천교시간
제1부: 불교 의식
제2부: 놀이 마당(공연 및 경품 추첨)
1등: 한국 왕복 비행기 표
기타 다수 경품

문의 전화: 408-476-2542
408-867-0489

입장료: 5불 / 5세 이하 무료

북가주 불자 송년 준비 위원회 북가주 사찰

달라이 라마, 일본을 방문하다

현대 과학과 불교 과학에 대해 토론

일본, 도쿄 - 달라이 라마 존자가 11월 13일 아침, 일본 의회를 방문하여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의 의원 140명에게 법문을 했다. 오랜 티베트 지지자인 세이슈 마키노 하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일본의 다수 의원들이 달라이 라마 존자의 말씀을 청했다고 말했다. 아베 일본 전 수상은 의원과 자민당을 대표해 존자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환영했다. 그는 인권의 중요성과 티베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평생 숙원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더 나아가 존자는 인류가 하나이고, 인간의 가치를 알리는 데 헌신하고 있다면서 큰 “우리”라는 사상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세속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종교의 화합을 역설하던 중 존자는 미얀

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불행한 폭력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존자는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 용서, 인내와 절제의 공통된 가치를 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존자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파괴적인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지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존자는 티베트를 위해 일본의 의원들이 모임을 만든 것에 감사를 표했고 티베트 불교문화와 환경에 대해 말했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티베트 고원이 남극, 북극과 함께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3번째 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중국에 이르는 주요 강들의 시원이 티베트에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강들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티베트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러 학자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마음을 더 평화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4억 명의 불자들이 있

습니다. 티베트 불교문화를 보호함으로써 이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회가 끝나갈 즈음 일본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일본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 존자의 이번 일본 법회를 통해 티베트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인권 탄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티베트인들의 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한 주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중국 정부에 대해 티베트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달라이 라마존자〉

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즉각 국제사회에서 공론화시킬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www.dalailama.com [2012. 11. 13]

미국 대통령 오바마, 태국 불교사원 방문

태국, 방콕 - 도로를 가득 매운 군중들의 ‘오바마, 오바마’라는 외침을 뒤로 한 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신발을 벗고 태국의 거대한 금 와불상이 조성된 사원으로 들어섰다. ‘왓포’라는 이름의 이 와불상은 미 대통령이 아시아의 첫 방문지로 택한 방콕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이다. 오바마는 클린턴 장관과 함께 태국 국왕과 수상을 만나기 전 왓포 사원을 방문했다. 가사를 수한 스님이 18세기에 돌로 바닥을 깔고 여러 색깔의 탑과 수백 기의 금불상이 있는 절로 두 사람을 인도했다.

와불상은 가로 46미터, 세로 15미터로 축구장 반에 달하는 길이인데 벽돌과 회반



〈태국 국왕과 대화하는 오바마〉

죽으로 조성했고 얇은 금으로 뒤덮여 있으며 발은 진주층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번 방문은 미 대통령에게 태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교통 체증으로 악명 높은 방콕 거리는 보지 못했다. 왓포뿐만 아니라 방문지에 이르는 모든 길이 안전을 이유로 통제되었다. 카메라를 들고 절을 방문해 오바마를 보러 했던 관광객들은 좌절해야 했다. 중무장한 캐딜락이 절 입구에 설치된 흰색 텐트에 들어서자 이들은 수백 미터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일정이 끝나기를 한 시간이나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쁨을 맞볼 수 있었다. 오바마가 환호하는 군중 앞을 천천히 지나가 84세인 국왕 일행을 향해 가면서 차 뒷자석에서 손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왓포 사원을 먼저 방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절은 태국 국민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67세인 수프라딧 할머니가 말했다.

Associated Press [2012. 11. 18]

미래 경제는 불교 경제로

미국, 피츠버그 - 2012년 11월 6일은 우리가 경제에 대해, 새 경제의 희망에 대해 투표한 날이다. 나는 중간에 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중도의 경제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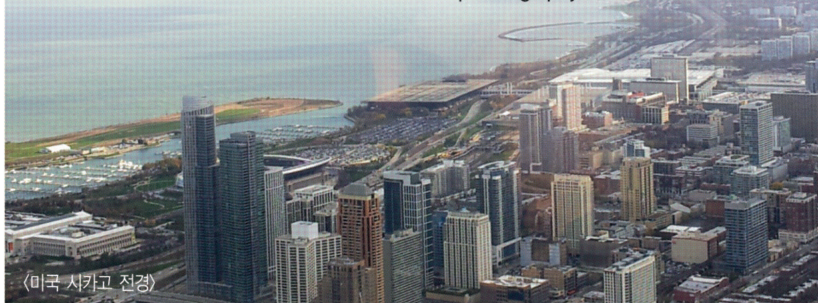
E. F. 슈마허는 그의 책 ‘불교경제학’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슈마허는 “부의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보편적인 동의가 있어왔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노동이나 일을 필요악으로 생각해왔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노동”은 어느 경우든 비용이 따르는 대상이고 최소한으로 절약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노동과 일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고 자신의 여가나 편리를 포기한 것이고, 급여는 이 희생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고용인 없는 생산이 이상이고 고용인의 목표는 일하지 않고 얻는 수입이다. 그렇다. 이것이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민자로서 목격해온 것이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없애려 하고, 일하는 대중들은 일찍 은퇴하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제를 만들고 싶은지 묻게 된다.

스스로 움직이는 경제?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미국인의 꿈인 것 같다. 이것이 미국식의 경제라면 불교경제학은 슈마허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는 일의 역할을 세 가지로 본다: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며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8정도의 정명, 곧 바른 생활일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내가 일할 때 나는 관념적인 나이를 멈추며, 나는 순간의 흐름 속으로, 일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임을 깨달았다. 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겸허하지도 않다. 나는 일을 통해 내 재능을 개발했고, 참선해서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에 부자가 되어 조기에 은퇴하려는 미국식 꿈을 꾸지 않았다.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다음 글로 블로그를 마칠까 한다. 새로운 경제를 세우려면 우리는 옛 꿈을 버려야 한다.

http://blogs.psychcentra.com [2012. 11. 6]



〈미국 시카고 전경〉

참선하면 감기를 물리칠 수 있다.

영국, 런던 - 참선은 겨울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8주 동안 참선 하거나 약간 강도 있는 운동을 한 성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덜 걸렸다고 위스콘신 매디슨대학의 한 연구소가 발표했다.

전에도 참선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주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번의 새로운 연구는 149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 그룹은 현재에 마음을 모으는 참선을 수행했다고 데일리 메일신문이 전했다. 두 번째 그룹은 규칙적으로 조깅을 했고 세 번째 그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후 연구원들은 9월에서 다음 해 5월에 이르는 겨울 동안 참가자들의 건강을 조사했다. 참선 그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75%나 많이 일에 빠지지 않고 활동했고,

운동 그룹은 48%나 많이 일을 했다. 게다가 참선은 호흡기 질환의 발병 기간이나 병세를 50%나 줄였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는 웹사이트에 보면 참선하고 운동한 사람은 평균 감기를 5일 동안 앓았다. 다른 그룹은 8일 동안 앓았다. 이번 연구는 피실험자가 직접 보고한 감기 지속 날짜와 몸 속의 항체 정도와의 상관 관계를 입증했다.

“전에는 심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책이 없었다. 그러나 그 효과가 크다고는 알려지지 않았다. 감기 주사의 효과는 매년 3회 정도의 감기에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운동으로 40%, 참선으로 50% 정도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실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구체화되면 더욱 더 큰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브루스 바렛 교수가 말했다.

PTI [2012. 11. 19]

집중조명 랍잡 린포체, 봉인사에서 법문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는 닝마파 족첸 수행

티베트 랍잡 법맥의 7대 전승자이자 네 팔 카트만두의 세첸 사원 주지스님인 랍잡 린포체 스님이 프랑스 출신의 세포유전공학자이자 작가, 사진가인 마티유 리카르스님과 11월 3일과 4일 이틀간 남양주 봉인사에서 닝마파의 명상인 족첸 수행법에 대해 강의했다.

위대한 완성, 대구경, 일원상을 의미하는 족첸은 모든 최상승 가르침의 기본 전제와 맥을 같이하는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실재는 오직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천차만별로 다양한 삼라만상의 본질도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 본성의 여여함을 곧장,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열반과 윤회, 깨달음과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 근원적인 가르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사선의 전통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음은 랍잡 린포체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마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산란한 상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알아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마음, 머무



〈백양사를 방문한 랍잡 린포체 스님〉

는 마음,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족첸 수행을 하는 과정은 우선 자격을 갖춘 스승이 제자에게 마음의 본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후 제자는 홀로 일정 기간 수행을 한 후 돌아와서 스승에게 의구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스승은 이를 명료화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자가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스승은 제자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때로는 “팻”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보통의 관념을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자의 마음에서 이어지는 개념적 생각들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끊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방편으로 스승은 제자가 명상하는 주제, 즉 경험을 하는 마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본성을 보여주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망상심과 청정심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본성을 명료하게 깨닫게 되면 다음은 외부 현상이 마음의 투

영이라는 점을 보게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마음의 본성인 지혜의 일어남으로 경험하게 되면 윤회적인 망상심은 끊어 집니다. 그러면 제법을 마음의 현현(顯現)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윤회계를 떠돌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분별망상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을 경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모든 경험이 지혜의 일어남으로 경험하는 대성취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자연스럽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족첸 수행에 대한 아주 간략한 입문적인 내용이었습니



서양 문화에 불교를 통합하기 - 불교를 잘 전할 수 있는 방법

스리랑카, 콜롬보 - 아시아 불자들은 불교가 아시아나 혹은 아시아 문화와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끔 잊곤 한다. 우리는 불상과 불교의례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동양 문화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서양에서 불교란 비교적 새로운 가르침이고 1950년대, 1960년대나 되어야 겨우 서양인 선(禪) 지도자들에 의해 소개됐다. 불교가 점점 주류문화에 유입되고는 있지만 아직 굳건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불교가 서양사회와 완전히 통합되어 교회처럼 익숙해지기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중국, 티베트, 베트남 등의 이민 불자들에게 의해 들어온 불교는 서양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이다. 곧이어 스님들이 이민자들을 따라 들어와 이민자들의 종교적 욕구에 맞춰 각 나라 전통을 중시하는 사찰을 건립했다. 아시아 스님들은 영어를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나 불행히도

아직도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찌 됐든 서양인 불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지는 않다. 초창기 서양인 불자들은 불교와 아시아 전통문화의 차이에 대한 가르침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은 불자가 되기 위해 서 아시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님들도 불교와 전통문화를 구분하지 못한 채 불교를 가르쳤고, 따라서 미국인들은 아시아 각 나라 절을 방문할 때마다 각기 다른 ‘구범’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나는 1976년 미국에 들어와 1979년 웨스트코스트에 절을 창건했다. 시작할 때부터 미국인 포교에 목표를 두고 활동했다. 그러나 다른 스님들 대부분은 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현지인들을 외면했다. 여러 해 동안 포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를 서양 문화에 접목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불교는 보편적이므로 어떤 장소와

시대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역설해야 한다. 사찰에 아시아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나 유물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영어와 서양 문화를 배워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된다.

◇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처음 참선에 매료되어 불교에 접근한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스님은 참선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수행지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스님은 참선 외에도 불교가 주는 실질적 도움에 대해 잘 가르쳐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를 서양인 불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 서양인이 스님이 되기는 정말 어렵다. 지난 36년 동안 단 2명의 서양인이 스님이 되었다. 32년 전에 재가자를 목사나 일본 스님 형태의 불교성직자로 길러내

는 3단계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우리 절은 현재 유능한 최고의 남녀 재가 성직자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결혼과 장례식의 집전, 참선지도를 하고 있고 불자공동체에서 봉사한다. 이 프로그램은 불교교육, 봉사, 교육지도자 양성, 수계를 단계별로 이끌어 간다.

이 체계가 효율적이고 많은 지원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일찍부터 서양인들이 천성적으로 독립적이고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가 성직자들은 세속에서 각자의 경력도 잘 쌓아갈 뿐만 아니라 본업 외의 성직 업무도 잘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절들은 여성 불자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절은 각종 의식에서 여성 불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있다. 스리랑카 전통에는 반하지만 부처님도 21세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리라 확신한다.

월포라 피아난다스님

Asian Tribune [2012. 11. 4]

아시아문화축제로 이주민들과의 유쾌한 어울림 남방불교의 카티나법회 봉행과 아시아음식축제 성료

지난 10월 28일, 가을 국화가 만발한 조계사 경내로 네팔,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스님들이 카티나법회와 아시아음식축제를 위해 모였다.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을 비롯한 사중의 스님들과 육법공양팀의 환영 속에 스리랑카 전통 공연단의 노래와 연주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카티나가사공양법회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미얀마, 인도, 태국 등의 남방불교에서 행해지는 하안거(음력 6월 15일부터 9월 15일 까지) 해제 기념 법회로 해제일 한 달 내에 사찰에 따라 적절한 날을 정해 행하고 있다. 연례행사 중 가장 뜻깊은 날로 스님들

께 가사를 공양하는 행사이며, 이는 부처님 재세 시부터 재가신도들이 안거를 원만하게 마친 스님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공경과 복전(복합)의 의미로 행해 왔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5개국 10여 명의 스님들이 팔리어 삼귀의를 시작으로 하나의 신타래로 이어진 기도 실을 스님으로부터 참가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어 잡고 참가자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축원기도가 이어졌다. 이어 오계와 자비경을 독송한 후 준비한 가사와 보시물을 스님께 공양을 올렸다.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주지인 와치사라 스님은 “남방불교의 전통의식을 여러 국가의 스님들과 함께 치를 수 있어 기쁘고,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계사와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 말씀을 전했다. 난생처음으로 카티나법회에 참석하신 몽골 법당의 바트보양스님은 “훌륭한 전통 의식

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카티나법회에 이어 우정국 공원에서 스님들의 탁발식이 진행되었고 스리랑카 전통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아시아 음식부스에서는 각국의 음식을 맛보고 함께 나누었다. 한국 불자들도 법회와 탁발식에 동참하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

을 통해 문화적 체험을 할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의 불교와 스님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어 의식을 봉행하면서 불심을 고취하고 자국의 문화와 음식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나 한국에 남방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장이 되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존경하는 스님들께, 저희가 이 가사와 보시물을 포함하여 공양을 올립니다.
저희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서 스님들께서 저희들의 이 가사와 보시물을 함께 받아주십시오.”



① 신도들이 스님께 공양하는 가사를 펼쳐 기도를 올리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② 조계사의 환영을 받으며 스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③ 미얀마, 스리랑카 등 4개국의 음식축제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구에서 스리랑카 불교의 가사공양(카티나 핀카마)법회가 열린다

스리랑카의 카티나 핀카마(가사공양) 법회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지성스님) 부설 대구 스리랑카 담마가웨시 사원(주지 아가담마 스님)에서 개최됐다.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재가불자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봉헌하고 공양을 올리며, 다 함께 불공 기도와 독경 및 명상, 예경 그리고 법문을 청해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법회는 주한 스리랑카 피싸 위제라트나 대사과 스리랑카 라만다 종단의 콜롬보 교구장인 나고더 아마르완서 스님, 전 스리랑카 국회의원을 지낸 담마로크 스님,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리랑카 스님 등 스리랑카 스님 12명과 (사)함께하는 세상 은장권 회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를 위해 스리랑카에서 오신 아마르완서 스님은 “한국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불교를 믿고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리랑카 스님들도 노동자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 053-592-1260

◀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리를 이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종교 간 평화 기원집회 열려

지난 10월 28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는 불교기와 피켓 등을 손에 들고 모인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주민들 300여 명이 ‘방글라데시 종교 평화 기원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의 시발점인 방글라데시 불교탄압사태는 지난 9월 말에 무슬림이 불교 신도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폭력사태로 24개의 사찰을 파괴하였다. 이 사태로 동자승 한 명이 사망하고 불교 신자들의 집 수백채가 공격받아 파괴되었다.

이번 종교평화 기원집회는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사태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앞으로의 재발방지와 평화정착을 요구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이날 집회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미얀마 스님들의 법문과 평화기원 명상, 나라별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장 해운스님은 “종교평화위원회도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알리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히었다. 스리랑카 담마끼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종교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방

글라데시에 평화가 오길 기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방글라데시종교평화비대위 02-720-7095



(위)참가자들이 PEACE라는 구호에 불을 밝히고 있다.
(아래)다양한 현수막과 피켓으로 종교평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희망신타’ 건립 모금 캠페인

지난 9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불교 탄압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집도 사원도 잃은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김포종합사회복지관과 청주 일심회가 아름다운 동행으로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해 기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종교평화비대위 02-720-7095



(좌)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65만원을 기증하였다. (우)청주 일심회에서 200만원을 기증하였다.

방글라데시 ‘희망신타’ 건립 모금

평화의 시멘트 1구좌
10,000원

자비의 벽돌 1구좌
5,000원

불상모연
300만원

후원계좌 : IBK기업은행 024-070670-01-011 (예금주 : 남춘호 방글라데시비대위)